



15일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성 골프 동호인이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마제스티 5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마 골프 초대 여왕 맞이하는 날 함평 다이내스티 4월은 눈부셨다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 우승 진춘임씨·메달리스트 정형숙씨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의 봄날 축제가 벌어졌다. 제 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5일 사계절 양산단지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40명이 참가, 봄의 싱그러움 속에서 갈고 닦은 샷 실력을 선보였다. 18홀 신페리오 방식(18홀·과 72)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오후 1시 일제히 막이 올랐다. 18홀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의 우승컵은 진춘임(46·광주)씨에게 돌아갔다. 진씨는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네트 스코

어 71.2타(그로스 스코어 82타)를 기록하며 대회 초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진씨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함평 다이내스티 CC 1년간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회원대우의 특전을 준다. 준우승은 김지숙(46·전주)씨가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네트 스코어 71.4타(그로스 스코어 81타)를 기록한 김씨는 1년간 주중 회원대우, 주말 준회원 대우 특전을 받는다. 3~7위에게도 골프 용품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정형숙(52·광주)씨가 1위에 올랐다. 4오버와 76타를 기록한 정씨는 메달리스트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함평 다이내스티 CC 1년간 주중 그린피 면

제와 주말 회원대우 특전을 받았다. 대회 통기스트에는 마제스티 18홀에서 214m를 기록한 김슬교(40·무안)씨가 이름을 올렸고, 팰리스 23번 홀에서 홀컵에 1m를 남긴 이보라(52·광주)씨가 니어리스트 타이틀을 차지하며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유은성(39·순천)씨는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았다. 또 추첨을 통해 60명의 참가자에게는 행운상과 함께 골프용품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승용차(삼성 SM 3)의 부상이 준비됐던 홀인원의 주인공은 어렵게 탄생하지 못했다. 대회 진행을 맡은 정성훈 경기위원장은

■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 여자 골프대회 수상자

우승	진춘임
준우승	김지숙
메달리스트	정형숙
통기스트	김슬교
니어리스트	이보라
베스트 드레서	유은성

“참가자들이 진지하고 차분하게 동반자를 배려한 가운데 플레이를 펼쳤다. 최고의 코스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함평군, 전남골프협회가 후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 다이내스티CC 클럽하우스앞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는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자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필드 위 고추잠자리에 반해 골프에 빠졌죠”

초대 우승 진춘임씨

“항상 뒤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는 가족들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215m의 장타를 앞세운 진춘임(46·광주)씨가 제 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진씨는 71.2타를 기록하며 초대 우승자가 됐다. 진씨의 우승 뒤에는 든든한 가족의 힘이 있었다. 특히 남편 박철식(56)씨는 진씨의 후원자이자 경쟁자이다. 진씨는 “7년 전에 남편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었다. 가을에 처음 필드에 나갔는데 고추 잠자리에 어우러지는 필드 풍경에 반해서 골프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상고에서 야구를 했던 남편은 필드에서는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하는 경쟁자이기도 하다.



진씨는 “대회를 앞두고 그린 연습을 많이 했는데 OB 두 개를 기록한 게 아쉽다. 그래도 행운이 따른 것 같다. 어프로치가 잘 됐다. 장타가 좋은 편인데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서 유연성을 키운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면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는 진씨는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대회가 된 것 같다. 코스가 난이도가 있어서 스틸 있는 승부가 됐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스 좋고 그린도 날씨도 좋아 즐거운 경험”

메달리스트 정형숙씨

“좋은 날씨속에서 좋은 동반자들과 즐거운 라운딩을 하고 갑니다.” 정형숙(52·광주)씨가 4오버와 76타의 기록을 써내며 광주일보배 여자 아마추어 골프 대회 초대 메달리스트 이름을 올렸다. 정씨는 정교한 퍼트를 앞세워 깔끔한 경기를 펼치며 메달리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정씨는 “이곳이 적어쳐야 하는 코스인데 아이언이 생각보다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퍼트가 좋았다. 평소에는 숏 퍼트를 많이 놓치는데 오늘은 퍼트가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성적의 비결을 밝혔다. 구력 10년의 정씨는 꾸준함을 과시하는 실력파. 최근 참가한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정씨는 “중종 대회에 나가 실력을 점



검하는데 얼마 전 신페리오 방식의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어프로치와 퍼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주말에 서울을 다녀오느라 연습을 하지 못해 걱정을 했다. 어제가 아들 생일이었는데 가족들 덕에 행운이 따른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정씨는 또 “코스가 좋은 대회였던 것 같다. 그린 상태나 페어웨이드도 좋았고 좋은 날씨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간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일(한국시간) 제77회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애덤 스콧이 그린재킷을 입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상어’ 노면도 못입은 그린 재킷 ‘꽃미남’ 스콧이 입었다

호주선수 사상 첫 마스터스 우승

애덤 스콧이 제77회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호주 선수들의 숙원인 그린 재킷을 차지했다. 스콧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쳐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를 다했다. 스콧은 호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개인적으로도 첫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16억3000만원). 또한 스콧은 마스터스에서 처음으로 통퍼터를 사용해 우승한 선수가 됐다. 연장 1차전을 파로 비긴 뒤 10번홀(파4)에서 치러진 2차전에서 스콧이 버디를 잡아

파에 그린 카브레라를 따돌렸다. 비가 계속 내린 오거스타 골프장에는 스콧이 우승하기까지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결승선을 향해 먼저 달려간 선수는 2009년 마스터스 우승자 카브레라였다. 만 43세의 나이에도 장타를 뽐내던 카브레라는 안정적인 퍼트실력까지 뽐내며 전반에 2타를 줄였다. 하지만 10번홀(파4)과 13번홀(파5)에서 보기를 적어내 주춤한 사이 치고 나온 선수가 스콧이었다. 전반에 보기와 버디를 맞아 타수를 줄이지 못한 스콧은 후반들어 3개의 버디를 잡아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2언더파 286타를 친 존 하슨 공동 11위에 올라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확보했다. 1, 2라운드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던 최경주(43·SK텔레콤)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공동 46위(5오버파 293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